

안철수도 조국도 고사... 혁신위원장 인선 진통

이종걸 원내대표 반발에 조 교수 발빠

새정치 내홍 확산 속 문재인 대표 고민 깊어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책임론을 둘러싸고 당내 내홍이 확산되고 있지만 좀처럼 수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습책으로 제시한 '초계파 혁신기구'는 위원장 선임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게 혁신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듭 거절당했고 외부 영입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발 빼면서 고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친노와 비노를 아우를 수 있는 당내 인사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문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혁신기구 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문 대표와 내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이종걸 원내대표 간의 이견만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내 화합과 일치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인 만큼, (혁신기구 위원장은) 당의 사정을 두루두루 잘 알아야 한다"며 "화합의 이미지를 갖고 의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내부 인사가 좋겠다"

고 사실상 조 교수 영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21일 오전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거론된 외부 인사로는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 윤여준 전 장관 등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 당내 비

주류에서는 친노 진영에서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인사를 영입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조국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를 공개 지지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문 대표가 외부 비대위원장으로 물 밀 영입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성향의 모 의원은 "조 교수는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며 "친노 진영이 조 교수가 가진 대중적 개혁 이미지를 차용,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혁신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 한다면 비주류에서도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중도 개혁적 인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에서는 22일 비공개 최고위를 개최, 다시 한 번 혁신기구 위원장 선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공식 추도식인 오는 23일까지 혁신기구 위원장 선임에 마칠 것인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문 대표가 약속대로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선임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당내 내분은 다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오른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文, 대권행보 독주 안돼...安·朴과 함께 가야”

〈안철수〉 〈박원순〉

“패권정치 청산” 연일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연이어 내놓았다.

김 전 대표는 21일 문 대표에 대해 “대권행보를 독주하는 모양새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득권을 말하면 문 대표나 친노(친노무현)만 기득권이 없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참석한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토론회에 참석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문 대

표와의 저변식사를 언급하며 “당의 문제를 계파 문제로 접근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이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안전 대표나 박 시장 등 유력한 대선주자들 함께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머지 두 분(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을 옆에 세우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도 문 대표에게 조언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두 분이 함께 앉아서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표까지 세 분이 국민의 희망을 모으고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이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계파 문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비노(비노무현)는 하나의 조직으로 뭉친 계파가 아니며, 제가 비노의 수장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다”라며 “저에게 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동지들이 만큼 계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 대표는 대표직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 문재인 대표에 대한 김한길의 생각”이라는 글을 공개하며 “친노(친노무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패권정치를 청산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근 문 대표의 ‘미발표 문건’을 언

급하면서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로 우리당의 상당수를 타겟 불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분열의 프레임’을 보였다”며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싸잡아 기득권·과거 세력이라며 종북몰이식 정치공세를 퍼뜨려, ‘공천지분’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나만 옳다”는 계파주의 전형의 독선과 자만심·적개심·공격성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가 이렇게 ‘분열의 정치’, ‘배척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총선과 대선을 승리를 이룰 수 있겠나”라면서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 자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계특위, ‘선거구조정 기준’ 법제화 착수

28일 공직선거법소위... 내달 본회의 통과 목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계특위)가 다음주부터 선거구 확정 기준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계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선거구 확정 기준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내달 4월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구 확정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선거구 확정 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확정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구성될 확정위원회가 이를 기초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도·농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 결과 지난

해 12월 현재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60여개가 통·폐합 대상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돼 27일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확대에 따른 지역 대표성 약화에 대한 대책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계특위는 또 28일에는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소위를 열어 전체 선거구의 조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계특위는 이르면 다음달 선거구 확정 기준을 마련해 공직선거법에 반영,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독립된 선거구 확정위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개호, 지역현안 해결 발벗고 나선다

담양·함평·영광·장성 경제활성화 위원회 창립

군수·군의회장·향우회장 참여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 이개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과 군수·군의회의회장·재경향우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4개군 발전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취업 지원 위원회를 만들었다.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지역구 전체를 포함해 이를 기구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4개군 경제활성화 및 취업 지원 위원회’ 창립대회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에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당연직 위원을 비롯해 지역출신 중앙 공직자와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군마다 3~4명의 출향 공직자 및 기업인,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가장 큰 활동 목표는 4개군이 협력해 국비예산 확보에 나서고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상호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속 지자체는 기획·예산부서 실무진들을 위원회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토록 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으로서 각종 현안·숙원사업 해결과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에 나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행정·재정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제해결을 위해 4개군 출향 기업인을 중심으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창립대회 사회를 맡은 이개호 의원은 “위원회는 4개군이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비예산 확보 등 정책결정을 극대화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향우회와 출향공직자, 지역출신 경제인과의 대화통로를 정례화해 이들의 역량이 지역발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4개군 경제활성화 위원회 위촉위원.

- ▲이개호 국회의원 ▲최형식 담양군수 ▲안병호 함평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윤영선 담양군의회 ▲정수길 함평군의회 ▲김양모 영광군의회 ▲김재완 장성군의회 ▲이은성 재경 담양군향우회장 ▲양규남 재경 함평군향우회장 ▲이성 재경 영광군향우회장 ▲김홍주 재경 장성군향우회장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사 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리코엔 (N) 골드

식사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사 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사 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1 식사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에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 늘 검색하세요
문의 H.P.010-3598-7080/1899-3975

2015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 문제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장외최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체류비 포함	창구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전형일시	2015. 6. 26.(금) 10:00~
합격자 발표	2015. 7. 23.(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융합학/식품·차산업학/지역혁신차량공학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a.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